

책돌이 그림책도서관

#광주 북구 #그림책 특화

책 돌 이 도 서 관



혼자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도서관

책돌이도서관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부설 도서관입니다. '학원 오가는 길에 들를 수 있고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도서관'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책돌이의 시작은 사람이었습니다.

10여 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치동에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네요. 도서관이 만들어지려면 공간과 사람, 책이 모두 모여야 가능한데, 우리는 당시 도서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 있었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다른 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함께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책돌이의 가장 큰 매력이었지요.



'책돌이'마크는 정승각 선생님의 작품으로, 책 읽는 아이를 상징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마스코트입니다. 흰색은 책과 거레를, 빨강은 희망과 즐거움을, 초록은 성장을, 청색은 책 읽는 맑은 눈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왜 도서관을 운영하는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무언의 다짐이기도 하지요.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책돌이도서관의 2017년
은 어떠했나요?**

올해로 책돌이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쳐오며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역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운영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지요. 10년 전 주 이용객이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고 어머니들이 직장을 찾아 떠나고... 새로운 이용자도 늘긴 했지만,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도서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소통과 쉼의 공간,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느낄까 고민하게 됐지요. 우리가 가진 그림책을 활용해 작가 중심 전시, 주제 전시 등 할 수 있는 작은 전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건물 구조로 인해 불결한 출입구 환경 개선과 전시 공간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에게 책돌이도서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지요. 그러다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림책 특화를 결심한 이유는 그림책이 책돌이도서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장서 회전율도 타 도서관에 비해 2배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책돌이의 자체 이용자설문조사에서, 오래 머무르기 보다는 한 두 시간 머무르는 이용자 대부분이 그림책을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서가에서 그림책 탐색이 어렵다고 답한 이용자가 92%, 활용할 만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한 이용자가 67%였어요. 자체 그림책 별치기호를 두고 따로 관리하고 있긴 했으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책 정보 서비스가 필요했지요.

다만 아쉬운 점은 책돌이도서관 운영주체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들이다 보니, 어린이 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책 특화도서관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부족한 채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가 해왔던 독서문화 활동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어요. 결국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니 회원들에게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지요.



▲ 공사 전 도서관 내부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하며,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면서 도서관의 모습을 그리는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신이 났어요. 온종일 회의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도 공사를 맡아주신 이은령 소장님이 보내주신 공간 그림을 보며 설레었지요. 공사를 위해 2층의 책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책을 이고지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정리된 책의 일부를 나누고 비우는 과정에서 수서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접 견적서를 살펴보고 단가를 조정해가며 공사 비용을 줄여보려 애를 쓰기도 했지요. 이 과정에서 이은령 소장님도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 번 견적서를 수정하시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지만 서울과 광주라는 지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중간에 광주업체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책장의 색상이 원목에서 짙은 회색으로 바뀌는 사고가 난 거지요. 이를 수습할 때 내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시공 잘못이니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온갖 요구에도 다 맞춰주신 소장님께 손해를 끼쳐가며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벽면과 책장 배색을 다시 짜고 부분적으로 원목을 살리는 여러 번의 보완 공사를 통해 겨우 마무리 되었어요.



▲ 공사 후 도서관 내부

동시에 한명희 이사장님의 컨설팅은 지역 안에서의 소통과 사업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어요. 첫 강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림책 특화가 이런 것이 맞나?’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후 이어지는 컨설팅 회의를 통해, 그림책 특화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지역 안에서 주민들과 나뉘지고, 복합적인 문화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지역 공동체 문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실제로 작은도서관의 개념에는 규모의 의미보다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사람 중심의 독서문화 운동, 도서관문화 발전 운동,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과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한명희 이사장님은 그림책 특강을 통해서 자주 만나다 보니 책돌이 식구 같아요. 책돌이 홍보대사를 자처하시고 만나는 그림책 작가님들마다 책돌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라고 하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또 한 번의 고비는 공사 후 짐 정리를 막 끝낸 오후,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의 3층 추가 공사 제안에서 부터 시작됐어요. 책돌이 내부에서는 공사를 줄이더라도 추가 지원금 안에서 해결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공사 할 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저는 결단을 해야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안 먹자니 아깝고 먹자니 내 그릇이 딱 차 있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센터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금액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추가 공사를 한다면, 부족한 금액은 또 어떻게 마련하나 싶었고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왕 시작한 일, 정말 잘 해보고 싶었어요. 주변에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때 이 사업 검토를 위해 만난 김세원 지부 감사님이 한 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꿈을 꾸는 관장님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같이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요.” 라고.

울컥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꿈을 꾸라고 해준 그 한 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힘이 한 걸음 나아가갈 용기를 주었고 부족한 공사비 마련을 위해 과감히 움직이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저런 시도를 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후원금이 모금됐고 추가 공사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말이 딱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매 순간 순간이 사건의 연속이고 그 건을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많은 책을 싸고 짐을 옮기던 이삿날이었지요. “특화는 왜 해야 되냐.”, “지원 받은 돈은 돌려주고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자.” 등 이사 결정을 하기까지 걱정해서 던지는 회원들의 한마디 말에 괜히 상처 받고 혼자 울기도 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걱정해서 건넨 말이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모두 섭섭하게만 들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힘이 된 건 믿고 힘을 실어준 후원회원들과 운영진들이지요. 며칠을 밤새며 도서를 배치하느라 고생하신 정경숙 수서팀장님, 이사 전 책을 싸기 위해 일손을 모았던 전선예 사서팀장님,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집에 있는 온갖 가전제품을 다 책돌이로 옮기시고 이삿짐센터 사장님과 비용 실랑이를 벌이던 신화숙 사무차장님, 오전과 오후 종일 보이지 않게 굶은 일 마다 않던 이정미 문화팀장님, 그리고 제일 젊다고 온갖 힘쓰는 일 다 찾아서 하는 막내 박선희 홍보팀장님,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뒷심 있는 임미정 지부장님. 그리고 책돌이 그림책특화도서관으로 변신하는 2017년에 지회장을 맡아 지회원들과 책돌이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 하느라 고생 많으셨던 정은미 광산지회장님, 윤혜숙 서부지회장님, 김현주 북부지회장님 외 함께 움직인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했을까 싶어요.

책돌이의 현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활동가들의 일이 많아지는 고민’을 함께 안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애썼다며 어깨를 토닥여주십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이겠지요. 넓어진 서가 공간만큼 활동가가 할 일은 더 늘었지만 자원 활동가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운영자에게 가장 큰 숙제고 고민입니다. 활동가 확보를 위해 올 해는 지역 대학 복지학과와 연계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낯선 일이라 사실 많이 두렵기도 해요.

그래도 지금 마을 주민들은 책돌이에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도서관이 있는 줄 몰랐다면 공사 중에도 2층으로 올라와 구경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리모델링 후 아이들을 안고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도 부쩍 늘었어요. 도서관이 카페 같이라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 참 다행이다 싶고요. 얼마 전 자주 놀러 오시던 어르신 한 분도 올라오셔서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도 되냐고 슬쩍 묻고 가셨어요. 어르신들에게 도서관은 아직도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만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책돌이도서관의 2018년 은 어떠한가요?

우선 2018년은 리모델링 이후 첫 해라 올해 슬로건은 ‘책돌이가 찾아가고! 책돌이로 찾아오고!’로 정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2차년도 중점 목표는 도서관의 그림책 이용자 저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당연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겠지요. 우리가 먼저 마을로 찾아가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벌써부터 운영진들은 그림책특화도서관으로서 ‘책돌이에서 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온갖 아이디어를 내보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쓰면서도 오히려 신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일이 힘든 건 그 다음 일이지요. 참 대단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지역 안에서 공공도서관과 함께 살아가려면 작은도서관의 특화는 이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화는 활동가들에게는 시야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민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면 주저 없이 도전하시라고 싶네요.

“누군가가 되었던 꼭 시작해야만 하는 일, 작은도서관의 특화는 그런 일 같아요.”

특화를 고민했던 책들이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들과 함께 울고 웃어온 지난 10년 동안 늘 곁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들은 칭찬 받아 마땅하고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